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7)

자주의 기치높이 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한 투쟁 조직령도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항일혁명 투쟁시기의 7호실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호실에 들어서니 벽면위에 띄어진 뚜렷한 글자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당조직체계 확립》, 《대중단체 확대강화》,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교수》,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뿌리는 글자들이 7호실의 사상주체적내용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1930년대 전반기의 전장에 불어선듯 참관자들은 승연한 세계에 휩싸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승리, 조선민족해방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입니다.》

강사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당조직체계를 확립하신데 대한 내용을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벽면에 게시되어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당조직 및 정치기관 체제도》를 가리켰다. 체제도를 통하여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는 조직에 맞게 새로운 당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신데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에 당의 기초조직인 새로운 조직을 조직하는 당분조를 내오시고 그 산하에는 당분조를 조직하시였으며 현대전제가 나온 후 부대안의 모든 사업을 조직행하는 집체조직도단위로서 현대당위원회를 조직하시였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강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에 유격주의적 지도체제를 확립하시였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일제의 국경경비진을 쫓고 당조직을 확대해나간 우리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더 깊이 새기게 되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업에 온성지구당위원회의경로로 이어진 령도업적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새기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시였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나무를 보여주는 사진자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참관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성지구에 나오시어 당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명도하시는데 대한 자료를 보는 참관자들의 감동은 컸다.

다음벽면에는 지하혁명조직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국내의 도시와 농촌, 어촌들에서 항일투쟁투쟁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각종형태의 반일투쟁을 적극 조직개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중단체들을 확대강화하는것을 당조직의 대중적개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식을 회복하고 돌리시니 주위에는 불과 10여명의 대원밖에 남지 않았다. 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관자들은 부후의 고적정명작 《반일전가》의 가사가 새겨진 벽면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혁명이 어떤 단산시현을 이겨내며 전진했는가를 말해주는 전교명이 어려웠다. 강사는 전교명이란 하늘아래 다려라든 뜻을 담고있다고 하면서 한층관동지와 조항남동지의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주제 24(1935)년 1월 하순 북만원정에서 군사정치적과제를 원만히 수행한 유격대원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간고한 행군길을 헤쳐나갔다. 가다가도 풀이 없는 눈보라와야,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돼들, 한미러의 강령이름을 가지고 전 대가 나 누어있고 그것도 떨어지면 생는 얼음이 한치처럼 힘겹게 전진하던 불굴의 투사들... 그 눈보라속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그만 속한을 만나시였다. 그때 19살이던 조항남동지는 너무도 안타까와 눈물을 흘리며 그이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 나라가 빛을 보지 못한다고 가슴을 두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식을 회복하고 돌리시니 주위에는 불과 10여명의 대원밖에 남지 않았다. 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관자들은 부후의 고적정명작 《반일전가》의 가사가 새겨진 벽면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혁명이 어떤 단산시현을 이겨내며 전진했는가를 말해주는 전교명이 어려웠다. 강사는 전교명이란 하늘아래 다려라든 뜻을 담고있다고 하면서 한층관동지와 조항남동지의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주제 24(1935)년 1월 하순 북만원정에서 군사정치적과제를 원만히 수행한 유격대원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간고한 행군길을 헤쳐나갔다. 가다가도 풀이 없는 눈보라와야,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돼들, 한미러의 강령이름을 가지고 전 대가 나 누어있고 그것도 떨어지면 생는 얼음이 한치처럼 힘겹게 전진하던 불굴의 투사들... 그 눈보라속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혁명에 대한 투철한 사랑감과 그이에서 겪으신 단산시현을 헤아리려는 참관자들의 눈굽은 젖어 들었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모진 시련의 고비를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파격히 이겨내신 우리 수령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다음벽면에는 제 1차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격대의 투쟁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자들과 조항남동지의 자들이 극과 극으로 벌어졌던 만 《민생단》 투쟁의 분절을 밟아놓으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을 고수하기 위해 전진히 투쟁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에서 유격대에 개설된 을츠리고있던 이자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을 떠나시자 머리를 쳐들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지령하면서 광기를 부리고있었다. 강사는 계속하여 다후회회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후회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인 대대적인 투쟁이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관자들을 혁명의 그날로 이끌었다.

다후회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인 대대적인 투쟁이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관자들을 혁명의 그날로 이끌었다.

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해방투쟁의 자들과 조항남동지의 자들이 극과 극으로 벌어졌던 만 《민생단》 투쟁의 분절을 밟아놓으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장을 고수하기 위해 전진히 투쟁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에서 유격대에 개설된 을츠리고있던 이자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북만원정을 떠나시자 머리를 쳐들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지령하면서 광기를 부리고있었다.

강사는 계속하여 다후회회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후회회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주의 기치를 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립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벌인 대대적인 투쟁이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관자들을 혁명의 그날로 이끌었다.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여 간부들을 선발하는 원칙을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는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승리, 조선민족해방 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요영구에서 만 《민생단》투쟁에서의 위장적 전향을 다시금 폭로하시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그후 국제당은 조선혁명의 자들의 자주적권리를 인정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견지하시던 자주적립의 빛나는 승리였다. 우리는 다후회회의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조선혁명이 헤쳐온 자주의 길에 얼마나 피어던 행로였는가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였다. 강사는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24(1935)년 3월 21일 부러

27일까지 왕청현 요영구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유격부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진출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회의가 가지는 역사적의의를 강조하였다.

참관자들은 요영구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방어로부터 전략적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기회였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읽어들였다.

다음벽면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새로운 전략적방향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유격대원들을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력부대를 이끌고 주제 24(1935)년 6월 제2차 북만원정을 떠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봉나루로 특색있게 설치된 전시대였다. 불을 맞은 백두대지를 형성한 불판을 배경으로 전시대위에 기관총과 박격포가 놓여있었다. 그 기관총과 박격포는 정안군농민들에서 로획한 전리품들이었다.

강사는 대령전투에서 유격대가 쓴 박격포탄소리에 적들이 혼비백산하던 사실을 들려주었다. 농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사상성신적도로만이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강철의 대오라는것을 알고 공포에 질려 머뭇머뭇 생각하지 않았다.

대령전투가 진행된 장소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며 참관자들은 그 날에 울린 박격포의 장성이 오늘날 미제를 공포에 떨게 하는 전략포에 드의 장제를 뒤성으로 이어지고있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있었다. 우리는 참관을 통하여 자주의 기발을 높이든 혁명의 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언정 길의와 파궤를 잊을 수 없다는것을 깊이 새기었다.

비록 명도는 작아도 강대한 힘으로 미제를 피수호 하는 제국주의인 함대들과 당당히 맞서싸우는 백두산대군.

그 위용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과 더불어 시작되고 력사의 광활을 파궤한 것부터 자주의 정의의 화길로 꽃피어 전진하는 성스러운 행로에서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최유일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서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가 10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해당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겸성일 함경남도 당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제 56(1967)년 6월 함경남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불멸의 명도자적을 아로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수행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반조도대입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8비남공공장(당시), 흥남비공공장(당

시), 용성기계공장(당시), 함흥에 군인수직이용공공장, 함흥모방직공공장, 흥남제약공공장, 서호수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공공, 기업소들과 수선, 농업, 과학교육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정책의 교시를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당 및 함흥시당형성 자취에이해 하시던 《단대표자외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를 비롯한 연설과 결론, 담화들에서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 주시겠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방적으로 되었으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대고 조로 돌릴것을 불리이키는 고무적기회로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인사상체제가

더욱 본분히 확립되고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성신적용모가 일신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혁명적전진이 일어나 2.8 비남공공장기업소와 흥남비공공장기업소, 용성기계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단산지구 생산물들을 비롯한 중요용량, 기업소들의 생산에서 비약이 이룩되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함남 땅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역사는 어버이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 은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김정은 동지께서 호르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며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진용돌적전선에서 지역자강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치있는 과학기술과도로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여 전력 생산을 높이고 주체비남공과 주체비로, 여러가지 화학제품과 대상설비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위한 전진적 투쟁을 계속해나가기 위하여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수령의 유년관철, 당정책을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 일리마다에서 전례 없는 로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만리마산구자태위를 승리의 대포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네이비도 만마련방공화국 대통령 린 조 각 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공중기추락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사망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2.8비남공공장기업소 가설소다직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항일혁명전열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어느 한 작업장에서 항일혁명전열들의 회상기《하자고 결심한 하면 못내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맹주적으로 연길공공장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쳐들리신 우리 혁명의 1세를처럼 삼여 투쟁해나갈 때 못내일 일이 없다고 열렬히 토론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전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워 오늘의 흥건군경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높은 생산성으로 만들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로동통신원 장명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전국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 백두산정에서 진행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진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국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이 10일 백두산정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의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리성민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위원장, 한계부론 일꾼들, 담사령군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체혁명의 역전 뿌리가 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창당한 미개가 밝아온 조종의 산, 혁명의 정신에 오를 담사령군대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 눈앞에 안겨오는 대양조선의 천하제일경의 황홀함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들을 혁명의 계승자, 담일 청년전위로 본분히 준비시켜야 함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변함없는 지면이었으며 우리 담일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높이 받들며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전진히 옹호고수하여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들을 혁명의 계승자, 담일 청년전위로 본분히 준비시켜야 함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변함없는 지면이었으며 우리 담일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높이 받들며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전진히 옹호고수하여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들을 혁명의 계승자, 담일 청년전위로 본분히 준비시켜야 함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변함없는 지면이었으며 우리 담일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10년을 1년으로 추를가는 새로운 영웅적인화를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창조하는 만리마산대의 청년영웅들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세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선군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다짐을 약속하며 맹세하였다.

담사령군대원들은 백두의 뒷과 기상을 청춘의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그 어떤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막아선다 해도 당의 위업을 위한히 충신하여 만리마산대의 위훈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신념과 의지를 다져 혁명적인 구호와 노래들을 힘차게 불렀다.

《조선중앙통신》









